

## 사이버공간에서의 여성의 자리

방 회 정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본고에서는 사이버공간이 현실에 시사하는 이중적 의미를 주로 인간관계적 측면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면서 그러한 환경조건의 변화가 여성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사이버공간에서의 주체해체의 문제와 관련하여 복수정체성을 지닌 '육화된 사이보그' 개념을 제안함으로써 사이버공간에서의 탈신체화, 탈맥락화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다원주의와 페미니즘의 연결점을 모색하였다.

사이버공간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의해 창출되는 인공의 정보공간이다. 사이버공간이란 단어 자체는 원래 cybernetics(인공두뇌학)와 space(공간)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이버네틱스는 희랍어 어원상 키잡이(helmsman)나 조종사(pilot)를 가르킨다고 한다. 이러한 본래의 의미 그대로 우리는 이제 단지 컴퓨터를 통한 인터넷에의 접속만으로 사이버공간이라는 무한한 정보의 바다를 마음껏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상 이같은 인간의 공간 확장의 역사는 새삼스럽기보다는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전통을 갖고 있다. 역사이래 인간은 끊임없이 새로운 도구개발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통신방법의 발명에 힘입어 대행자 공간(agent space)을 확장시켜 왔었다. 특히 컴퓨터의 출현은 인간의 정보처리 능력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었을 뿐 아니라 컴퓨터 통신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 제약을 넘어서서 양방향적인 정보

교류의 가능성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즉 뉴미디어는 오랜 세월에 걸친 확장을 향한 인간 노력의 위대한 결과물로, 그 왕좌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말해 사이버공간이란 자신의 자연적 감각과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대행자 공간을 확대시키려는 인간의 야심찬 기획의 한 과정에서 출현한 방대한 가능공간인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이버공간의 출현에 대해 유별난 관심의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은 사이버공간으로 펼쳐지는 네트워크가 기존의 통신방법과는 달리 역동적인 양방향적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면서 인간의 주체형성에 깊숙히 관여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광활한 인조공간과 그러한 공간에 출현과 더불어 변화하게 될 미지의 인간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현재

사람들간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과연 사이버공간이 인류에게 자유와 평등을 극대화시켜주는 새로운 유토피아를 열어주게 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아나키 상태로 몰고 갈 것인지, 나아가 그러한 세상에서의 미래형 인간은 성별, 인종, 연령 등 기존의 차별범주가 해체된 복수정체성의 주체로 진화(?)할 것인지, 아니면 자아동일체로서의 개인의 인격성마저 매몰되어 파편화되어 갈 것인지를 좀체로 종잡기가 어렵다. 그러나 알고 보면 사이버공간이란 인간과 컴퓨터와의 접속으로 드러나는 인간이 만들어낸 전자공간일 뿐이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현재의 우리들 정보인 대부분 역시 다름아닌 사이버도시의 초기 입주자들이 아닌가? 결국 사이버공간 자체가 외계생물이 어느날 지구인에게 던져준 외적 공간이 아니라 인간정신이 스스로 확장시킨 가상공간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사이버공간과 관련지워 예상되는 갖가지 미래사회 모습도 현재의 물리적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사이버사회에서의 인간의 특성 또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현재의 우리 자신들의 속성을 통해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사이버사회에서의 인간의 사이버고화에 대한 대책 또한 우리의 현실 그 자체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는 논리이다.

사이버적 삶의 일상화는 기존의 수직구조를 약화시키면서 수평적 관계 확산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평화 과정을 둘러싸고 불가피하게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의 세력 관계가 변화되면서 사회구조는 물론 인간관계 전반에 걸친 지각 변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사이버도시 초기 입주자들에게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향후 전지구촌에 걸쳐 인간 사회의 중대한 이슈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사이버文形의 특성상 기존의 인간대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인간과 비인간사이에도 새롭고 다양한 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주체의 존재양상

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는 인간 주체성 논의자체가 과거를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임을 함축하는데, 이 점이야말로 특히 주체로서의 여성의 자리에 관심갖는 페미니즘 진영의 중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인터넷이라는 테크노환경 조건의 변화에 따라 다차원에 걸쳐 새로운 형태의 권력과 저항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새로운 양상의 지배와 억압, 해방과 탈주가 동시적으로 시도될 것이라면, 이같이 혼돈된 일종의 권력 재편의 과정에서 과연 페미니즘은 어떤 가능성을 읽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다시말해 사이버세상으로 진입이라는 삶의 조건의 변동 속에서 여성들은 과연 어떤 자리에 서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반휴머니즘의 극복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를 깔고, 일차적으로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그 순기능과 역기능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이중적 특성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함의를 여성의 문제와 관련시켜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사이버공간에서의 주체형성의 특성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검토하여 그와 관련된 문제점 극복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진화된 사이버그의 특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 사이버공간의 이중적 의미

사이버공간이 인간의 삶으로 끼어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금세기 말에 불과함에도 이제는 그 공간이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주공간으로 자리잡을 듯이 우리를 향해 막강한 변화를 휘몰아오고 있다. 사이버세상은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들을 시공간에 구애받지않고 교류하고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사회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네트워크 사회에로의 진입이 가져올 변화들 가운데서도 사회구조적 변화와 맞물려지는 인간관계에서의 변화 특성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의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우선 낙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디지털화된 사이버사회에서는 권력분산을 통한 수평구조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평면화된 구조 속에서의 투명한 인간관계를 확산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네트워크 사회가 상대적으로 보다 느슨하게 연결되는 탈중앙집중적인 체계라는 점에서 사이버공간의 등장은 피지배 계층들에게도 열린 미래를 가져다줄 가능성을 높혀주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의 뒷모습에 분명 기존의 전형적인 약자 집단들(성별, 인종, 계층 등의 차원에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위협적 요소가 감추어져 있을 수 있다. 여기서는 사이버공간의 순기능 외에 페미니스트들로 하여금 정보사회에서의 여성의 낙관적인 미래 전망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정 측면까지를 포괄하여 사이버공간의 이중성이라는 주제로 접근해보기로 한다.

## 사이버공간의 순기능

### 권력분산과 수평구조화

금세기 인류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마침내 마셜 맥루한이 지난 60년대에 예견한 지구촌 마을의 실현에 성큼 다가섰다. 특히 WWW(World Wide Web)의 출현은 지구촌 개념을 일층 고양시켜주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 같다. 초창기에는 주소마다 특정국가나 대륙을 표시하는 코드가 있었지만 오늘날 그런 지리적 표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교류는 이제 지구상의 특정장소나 인물에 대해서가 아니라 개인이 관심하는바 어떤 주제나 개념 앞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과도 비슷해지고 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기존의 중앙집중형 세상과는 달리 권력분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전통적인 수직적이고 상하서열적인 위계질서가 분쇄되고 인간관계가 좌우평등적인 수평관계로 평면화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과 관련하여 극단적

인 자유주의자들은 미래사회에서 국가간의 경계 소멸 가능성까지를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비록 분권화된 디지털 세상을 환영한다하더라도 페미니즘의 관심사는 국가의 해체여부 자체가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 존중되면서도 보다 큰 집단공동체와의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세상에 대한 바램일 것이다. 인터넷이라는 전자 네트워크에 특정한 지배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비록 국가라는 범주가 지속된다고 해도 사이버공간은 그때 그때의 필요성에 의해서 민주화된 독특한 지형을 구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선택한 종교공동체, 문화공동체, 그리고 경제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곤 한다. 다시말해 사이버공간의 출현으로 한 개인이 국가의 성원이자 전지구적으로도 여러 공동체에 속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깊어져가고 있다. 결국 사이버공간을 통해 우리는 거시사회의 독단화되기 쉬운 지배적 구조를 분할시킬 수도 있고, 역으로 개인으로 흩어져있던 소단위의 의견을 전지구적으로 뭉치게 할 수도 있다. 개인들의 힘에 의해 더크게 만드는 것과 더 작게 만드는 일이 모두 가능한 공간이 사이버공간인 셈이다. 이는 페미니즘의 실천을 위해 두가지 측면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실천적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하여 사이버공간을 통해 기존의 남성중심주의를 분열시키면서 동시에 여성 목소리들의 세력화를 진행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변증법적 상승작용까지 기대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컴퓨터 통신교류를 통해 모든 사람들간의 의사소통이 극대화됨으로써 민주제도의 궁극적 완성을 불러오리라는 관측은 페미니스트에게는 희망적인 뉴스이다. 사이버공간이란 외부로부터의 간섭이나 규제가 주어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이 공간에서는 사이버시민 누구나 상호 대등한 관계라는 지위적 특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사이버공간이 일찌기 인류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스럽고 평등한 세계를 열어주게 될 것이라는 주장의 논리적 기반이 되는 셈이다. 특히 정보접근을 위해 언어도 필요없이 쉽고 친근감을 주는 그림을 마우스로 누르기만 하면 되는 화상컨트롤이 일반화될 경우 지식의 수준에 구애받지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유하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보의 민주화, 대중화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해 사이버공간이 대중의 폭넓은 참여와 교류를 통해 막힘없는 인간정신의 상호교류, 풍성한 공감작용이 일어나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휴머니즘의 전지구적 실천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사이버공간 특유의 메커니즘을 통한 이러한 휴머니즘적 패러다임에로의 전회야말로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볼 때 기존의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남성중심주의를 극복하고 그동안 억압되어왔던 여성들의 목소리가 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지리적 거리, 시간적 한계, 권위주의적 질서를 넘어서서 이같은 모습의 사회 출현은 페미니즘의 목표하던 사회에 근접한 모습이기도 하다.

### 투명한 인간관계

사이버공간에서는 기존의 물리적 대면교류에서와는 달리 개인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부가적 정보를 언어 또는 화상으로 제공해주지 않는한 국적, 성별, 연령, 계층 등을 떠난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와 사적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을 보더라도 약화된 형식성과 위계성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단순히 시공간적 한계를 초월한 정보교류가 가능하다는 점 이외에도 성별, 연령, 학력 등 기존의 인간집단을 차별적으로 분리해오던 강력한 특정 범주들을 넘어서서 순수한 인간적 친밀감에 기반한 상호교류를 가능하게 해주는 장점이 있음을 시사

한다. 실제로 사이버교류(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는 상대방의 지위, 신체적 매력, 행동거지 등에 의해서 영향받기보다는 메시지의 특성에 의해서 영향받을 것으로 예측된다(Sproull & Kiesler, 1986). 물론 인터넷을 통한 교류의 확산이 현실세계에서의 직접적인 만남에 의한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상과 함께 그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없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보면 오히려 사이버공간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야말로 구체적 만남에 구애받지 않는, 개방적이고 투명한 인간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투명한 인간관계라함은 성별, 연령, 외모, 재력, 권력 등 외현적으로 드러나는 단서보다는 인간의 내현적 준거가 보다 중요해지는 인간관계를 말한다. 다시말해 세상적 준거를 가지고 외양(appearance)으로 전달되는 이미지에 급급한 가치평가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만남이 아니라 상호간의 대화적 피드백에 근거해서 맺어지는 순정한 관계를 의미한다. 결국 투명한 인간관계란 계산적 합리성에 근거하기보다는 순수성, 신뢰감, 그리고 자발적 참여성이 강조되는 관계맺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방식의 인간관계의 투명성은 자칫 페미니스트 입장주의(feminst standpoint) 진영을 당혹하게 하는 부분일 수 있다. 이들은 성별(gender)이라는 이론적 계층을 상정하고, 그 입장에 서서 여성의 미래를 구상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성별범주에서 자유로운 투명한 만남을 무조건적으로 찬성할 수 없는 입장이다. 성별범주에의 관심없음이란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하여 확실한 연대감을 형성하려는 페미니스트 입장주의의 전략적 기반자체를 상실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공간에서의 투명한 만남에서는 아마도 기존의 성차별적인 이분법 범주가 그 위력을 잃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투명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자리잡아

갈 경우 성별정체감 정립의 문제는 디지털 사회에서의 또다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하여 페미니스트 입장주의에서와는 달리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 진영(Harding, 1991)은 여성에게 균열된 복수정체성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을 전통적인 단일한 정체성으로 묶어 갇혀두려는 남성중심주의에 저항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오히려 성별해체를 환영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별에서 자유로운 미래적 인간모습의 하나로 사이보그적 인간형을 페미니즘의 주요한 전략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인간관계의 투명성 맥락과 부합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김미경(1997)이 제안하고 있는 페미니즘을 위한 사이보그 이미지를 상세히 살펴보면 사이보그란 추상화된 개인, 우주속에 고립된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유기체, 자연과 인공물, 상상과 실재간의 경계를 흐리게 만드는 포스트모던 자아로서의 현대인의 모습이다.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 진영에서 이같은 사이보그 존재가 페미니즘에 적절한 인식적 공간을 허용한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남성과 여성의 차이, 주체와 객체의 구별을 인정하지 않는 사이보그의 그 상상적 몸체의 특성에 있다. 나아가 투명성 차원을 넘어서서 사이보그가 '균열된 정체성'(fractured identities)을 가지고 그 자체를 정치적 힘으로 바꾸는 존재라는 점을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은 강조한다.

더 나아가 Haraway(1988)는 상황지위된 지식들(situated knowledges)을 페미니즘적 객관성의 이상으로 삼고 지배자의 입장을 극복한 다양한 입장들을 받아드림으로써 좀더 객관적이고, 실제 세계에 충실한 지식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헤러웨이가 의도하는바 객관성이란 지배자의 입지를 은폐하기 위한 거대담론의 구체적인 상황을 초월한 추상적이고 억압적인 기계와는 다른, 남성중심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닌 포스트모던 주체에 의해서만 성취되는 간주관성

(inter-subjectivity)을 말한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전적으로 옳다면 그녀가 제안하는바 사이보그화를 통한 페미니즘적 실천이란 단지 여성만을 위해 남성중심주의를 허무는 작업으로서의 의의를 넘어서서 투명한 인간관계를 통해 지배담론에 의해 억압되어왔던 다양한 목소리들을 살려내기 위한 휴머니즘적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주체의 사이보그화가 의도하는 바는 성별 범주 뿐 아니라 모든 억압적, 차별적 범주를 해체시키고 상황지위된 맥락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페미니즘 이론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이론으로서도 차용될 수 있다는 말이다. 아마도 사이보그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사이버세상의 모습이란 성별을 초월한 다양한 주체들간의 투명한 인간관계가 맺어지는 만남의 공간인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는 휴머니스틱 프로젝트들에 우호적인 공간, 즉 억압이나 착취위에 기초한 단일한 시각이 장요되지 않은 공간일 수 있다.

## 사이버공간의 역기능

### 익명성 효과

현재의 사이버공간이 물리적 공간을 대체시켜 나가면서 컴퓨터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소통의 차원을 넘어서서 현대인 특유의 고립감을 해소시켜 주는 사회적, 정서적 공간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일부 사실이다. 인터넷은 지리적, 시간적 한계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제한을 뛰어넘어 개인적 근접성으로 순식간에 익명의 사람들간에 격없는 친밀한 교류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계 질서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신비롭게까지 느껴진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누구라도 그 누구로부터의 방해나 간섭을 받지않고 마음껏 향해나갈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찬가지로 그 누구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그 향해를 멈출 수도 있다. 그러나

사이버교류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익명성은 그 효과 측면에서 이중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게 된다. 긍정적 시각에서 본다면 익명성은 하나의 보호막으로 기능함으로써 현실의 대면 상황에서 갖추어야 하는 경직된 사회적 규범이나 관례, 그리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로서부터 비교적 자유롭게, 대등한 상호교신을 가능하게 해준다. 동시에 일관된 사회적 정체감을 고수해야 할 의무로부터 해방시켜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다양한 모습에로의 변신을 만끽하게 해줄 수 있다. 원하기만 하면 사이버공간에서는 다양한 ID나 대화명을 통해 그때 그때의 개인적 욕구에 따라 새로운 가상인물로 변신하여 대리만족을 얻을 수도 있으며 다양한 역할경험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익명성은 여성들로 하여금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여 솔직한 의견개진을 하는데 도움이 되어 자기노출을 통한 자기주장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익명성은 보호막의 기능을 뛰어넘어 상대방에 대한 무례한 반응 뿐 아니라 자칫 탈규제적인 행위를 야기시키는 폭력의 선조건으로 작동하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은 사이버교류자의 상당수(55%)가 컴퓨터통신의 문제점으로 언어적 폭력을 지적하고 있다는(서울 YMCA, 1995) 조사 결과에서도 명백해진다.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익명성 상황이란 이렇듯 사람들로 하여금 종종 자신에 대한 통제력 자체를 둔화시키게 되어 역할관계를 무시하거나 몰개성화된 상태에서 금기시하는 행위나 욕구를 서슴없이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한규석, 1997).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는 익명성의 가면뒤에 소통과정에서 물리적인 얼굴을 아예 삭제해버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인간에게서 표정있는 얼굴이야말로 책임의 일차적 소재지이고, 살아있는 눈이야말로 신의를 전달하는 마음의 창이다. 인간의 자존심을 건드릴지는 몰라도 타자의 시선이야말로 우리를 인간답게 머물게 하는 비판적인 제어도구가

된다. 따라서 타자의 시선으로부터 숨을 수 있을 때 대다수의 우리는 느슨해진 도덕감에 안주하여, 익명성이라는 보호막 아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감마저 희미해질 수 있다.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의 행위역시 상대방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은 종종 탈선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게 한다. 더구나 배려성이라든지 온정과 같은 전통적 미덕은 점차 이웃에 대한 무관심과 냉담으로 대치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공간에서의 원격조종을 통한 경험이 증가하게 되면서 개인의 시선자체가 어느덧 구경꾼화 되어, 현실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조차 직접적으로 반응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채로 서로들에게 수동적인 방관자로 머물게 한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 습관은 전설 속의 도깨비보재기보다도 더욱 신기한 마술 기능을 발휘하여 개인의 정체를 감추어줄 뿐 아니라 수시로 다른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바꾸어주기까지 하면서 결국은 자기자신조차도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잠복자들의 숫자가 증가할 때 사이버공간에서 공동체 의식이란 성숙할 수 없으며, 그러한 공간에는 또한 폭력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다시 말해 익명성의 부적효과로 사이버공간이 인간다움이 증발된 또다른 억압과 폭력의 공간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근래 사이버공간에서 음란의설물이 범람하는 현상 역시 이러한 익명성 효과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여성적 조건이야말로 이러한 유형의 익명적 폭력의 표적이 되기 쉽다는 점에서 사이버공간의 익명적 특성은 페미니스트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 의사친밀감

컴퓨터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네티즌들에게서 현실세계보다 가상공간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익명적인 교류관계가 과연 사이버 예찬론자들의 기대만큼 사람들간에 경계없는

친밀성을 제공해주는가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인터넷은 그 특성상 타자와의 직접 접촉을 하지 않고도 심지어는 마우스 클릭 하나로 개인이 원하는 필요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얻어낼 수도 있다. 이러한 신속함, 속도감에 감염되어 사이버공간에서는 정보탐색 뿐 아니라 사람간의 교류를 통한 공감과 위안마저도 점차 속도전의 양상을 띠워가고 있는 것 같다. 사실상 사이버공간에서의 상당수 교류가 전통적인 인간적 만남이기 보다는 물질적 정보와의 접속 이상의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유형의 사이버교류는 언제라도 일방향적으로 끝낼 수 있는 관계라는 점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있으나, 그 자유로움의 정도만큼이나 가볍고 일시적인 인간관계에 머무르게 되기 쉽다. 쉽게 접속되는 전자적 만남에 익숙해지다 보면 얼굴을 맞대는 전통적인 만남 자체가 번거롭고 귀찮아지게 되며, 마침내 그런 상황이 두렵게까지 느껴지게 되버릴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의사친밀감- 여기서는 의사친밀감이란 개념을 전통적인 직접 접촉이 아닌 전자적인 접속을 통해 매개되는 친밀감이란 의미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 진짜 친밀감보다 더욱 진짜로 다가서게 되어 구체적인 물리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맞대고 생활을 공유해야하는 것은 오히려 불편하고 서툴어지게 된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보면 사이버교류가 열린공간에서의 교류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의 공간 속으로 웅크려들게 만드는 원흉이 될 수도 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찾는 신세대 인구의 급증현상 그리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만남의 유행풍조 모두가 젊은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이버환경 조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살기의 경험보다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이버공간 앞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의사친밀감 착각증 환자들이 증가하게 될 때 이 사회에서 살아숨쉬는 공동체의식을 기대하기란 힘들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 자체가

무색해지게 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이 접촉을 두려워하고, 삶의 광장으로 나가는 것을 기피하는 접속중독증(internet addiction disorder, IAD)을 양산하는 공간화할 가능성은 휴머니스트들에게 뿐 아니라 페미니스트들에게도 깊은 우려를 안겨준다. 특히 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교류경험 자체가 육체의 초월을 하나의 특징으로 삼고 있다는 문제와 관련된다. 여기서 육체의 초월이라함은 육체의 참여가 필수적인 실제공간에서의 접촉경험과는 달리 컴퓨터와의 접속경험에서는 비육체적인 참여만을 허용한다는 점과 관련된다. 사이버교류가 인간의 육체가 배제된, 즉 촉각적 접촉이 배제된 전자공간상에서의 접속에 불과하다는 점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접속에의 탐닉이 불가피하게 정신과 육체의 분열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이는 곧 인간 몸성의 파괴로 이어지게 된다. 사이버상황에서 정신과 육체는 결코 예전과 같은 관계는 더 이상 아니다. 정신이 사이버공간에 거한다 할지라도 육체가 거기까지 따라가 머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신이 사이버방에 빠져있는 동안 육체는 춘향이 방문앞을 지키고 서있는 방자의 신세만도 못하게 된다. 향단이와의 대화는 커녕 화장실 출입마저도 제한되는 신세(몸의 처지)이니 말이다. 가끔씩 정신은 제정신을 차리려고 잠시 제 몸뚱이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곧바로 다시 사이버공간으로 떠나가버린다. 이렇듯 사이버경험에의 몰두를 통한 정신과 육체간의 분리과정, 즉 육체에 대한 정신의 착취과정에서 육체자체도 분열하게 된다. 그야말로 사이버공간은 이제 라캉의 명제가 "나는 내 몸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생각하고, 내 몸은 내가 생각하지 않는 곳에 존재한다"로 바뀌는 장소인 것이다. 하나의 육체는 정신에 홀려 사이버공간을 유령처럼 떠다니고, 또 하나의 육체는 그 몸성을 잃어버린채 사이버공간 밖에 머물게 된다. 인간 육체란 몸성을 착취당한 몸뚱이만 혼자 덩그마니

컴퓨터 스크린 앞에 붙모로 잠혀있는 형국이다. 이렇듯 심신을 겸비한 온전한 인간도 그렇다고 완전히 비육체적인 정신적 존재만도 아닌 새로운 인간들간에 이루어지는 컴퓨터교류의 친밀성에는 분명 무언가 우리를 불안케하는 의문점들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 유명한 할로우 원숭이 실험에 근거하더라도 '접촉'이란 인간(동물울 포함하여) 관계에 필수적 연결점이 아닌가? 결국 '접촉'이 배제된 '접속'만이 이루어지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간의 육체초월 현상은 단순한 의사친밀감의 문제점을 넘어서서 인간정신의 모반(matrix)인 육체에 가해질 불가한 변화를 예감케한다.

## 페미니스트의 딜렘마

### 여성불평등구조의 재생산

사이버공간은 외면상으로 현실세계에서의 지배계층과 피지배 계층 사이에 있는 대립과 분열을 넘어서서 자유로움과 평등을 제공할듯이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 아직 그 방향을 구체적으로 가능하기는 어렵지만 사이버공간이 새로운 사회구조화를 이끌어 올 것이라는 사실만은 분명하다. 아마도 기존의 장소를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기존 공간의 구조적 특성, 즉 현 사회구조가 지니고 있던 한계들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사이버공간의 확장은 피지배적 지위에 속해있던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복음일 수도 있다. 사실상 육체의 참여가 불필요하고, 외현 단서가 무효화되는 사이버공간에서는 성별, 연령, 계층 등으로 구분지워지던 차별적인 위계질서가 예전만큼의 위력을 발휘하기는 어렵게 될것이 분명하다. 앞서도 지적되었듯이 낙관적 시각에서 본다면 페미니스트들은 이러한 느슨해진 틈사이를 비집고 여성들간의 새로운 연대가능성을 실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으로 사이버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인정받은 임자가 없다하여 사이버공간이 곧 권력과 무관한 공간은 결코 아닌 것이다. 아마도 미래인간 사이버주체의 형성기반인 인터넷이라는 신종 영토를 둘러싸고 새로운 권력 재편이 이루어질 것이다. 테크놀로지의 속성상 물리적 기술혁명이 곧 인간내부의 의식혁명으로 직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서구의 개인주의적 가치체계에 뿌리를 둔 정보사회에서 사이버공간은 자칫 폭력과 독점의 아나키 상태로 돌변할 가능성 또한 높다. 플라톤, 라이프니츠, 데카르트, 베이컨 등의 사유를 밀받침으로 하는 서구 문명에서 배태된 사이버공간에서 노장자식의 동양적 세계질서를 기대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한 이상일 뿐이다. 사이버공간을 통한 유토피아적 평등을 꿈꿨던 사이버예찬론자들 사이에서조차 오늘날 정보사회에서 새롭게 등장할지도 모르는 대립과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의 컴퓨터연구소 카리스탕 박사가 언급하였듯이 이제 인터넷은 제2의 식민지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대중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극성스런 상업주의 물결이 아닌가? 정보산업 자본가들은 사이버예찬론자들의 소망과는 무관하게 정보공유를 통한 민주화, 인간화 작업의 시도가 아닌, 정보공간에서의 패권 차지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기술의 발전이 해결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사이버공간을 둘러싸고 과거와 동일한 방식은 아닐지라도 새로운 경계선 설정과 영역확보를 두고 또다른 형태의 갈등과 적대, 그리고 권력투쟁이 빚어질 것이다. 정확한 주인이 없다는 공간적 특성상 사이버공간에 어느날 조지 오웰의 「1964년」에서와 같은 빅브라더 내지는 아니면 스몰브라더가 출현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벌써부터 사람들은 금세기 말즈음에 가면 4-5개의 거대복합기업이 세계 미디어 분야를 완전히 장악해버릴지도 모른다는

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사이버공간이라는 현대과학기술 덕분에 가능해진 지적, 문화적 다양성의 가능공간이 독점자본주의 때문에 또하나의 제국주의화될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모든 유토피아의 꿈이 그러하듯이 인터넷 신화에도 검은 뒷모습이 은폐되어 있다. 현실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의 평등한 공유보다는 정보의 독점 현상이 갈수록 정보부자, 정보빈자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문가들조차 21세기가 안개될 최대의 고민을 정보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으로 예측하고 있을 정도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삶이 일상화될수록 컴퓨터 세상 속에서의 빈부격차와 그로 인한 소외현상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사이버사회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두려움이 기존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두려움 그 이상으로 세계 도처에서 거론되어지고 있다. 사실상 미래는 정보강자에 의해 지배될 것이라는 예측이 당연한 상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형편이다. 인터넷이 만들어내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삶이 대중화되면 될수록 정보부자와 정보빈자간의 격차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될 것이다. 노무라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93%가 '정보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과 정보문맹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불안감은 일반적으로 정보약자 집단으로 갈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비록 차별이나 편견을 가진 것은 인간이지 기술 그 자체는 아니라하더라도 그 배분과정에서 인종, 계층, 성별에 따른 차별이 끼어들게 마련이다. 정보사회화 과정에서 고령자, 주부, 저소득층 등을 중심으로 정보약자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과 정보강자들과의 격차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빈부격차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계층들이 정보사회에서도 동일한 처지에 놓여질 전망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사회적

고정관념이 변화하지 않는한, 그리고 여성자신의 의식화가 일어나지 않는한 정보화시대의 빠른 변화를 쫓아가지 못하고 여성들이 정보화시대에 주 정보빈자 계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인터넷 웹사용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미국의 경우 15.5%, 우리나라의 경우 10% 미만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1996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공대나 자연과학대 등을 지원하는 여학생수도 여전히 입학정원의 10%수준에 불과하며, 이런 추세가 계속되는 경우 산업화시대를 거치며 어렵게 끌어올린 그나마의 성평등이 오히려 3F 시대, 즉 가상(fiction), 감성(feeling), 여성(female)이 중요해지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역으로 과거와 같은 구조적인 성불평등 상태로 재추락할 위험성이 높다. 더구나 이러한 남녀격차는 앞으로 본격적인 사이버시대에 돌입할 경우 정보자산에서의 더욱 심화된 남녀불평등 현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결국 상당수의 여성들은 그녀들의 역사적 선조건의 특성상 사이버사회에서도 여전히 정보빈자, 피억압자의 계층에 속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사이버사회에서의 페미니즘 전망을 어둡게 한다.

### 여성세력화의 무장해제

사이버상황은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온 어떤 환경조건보다도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획기적인 변화를 몰아올 조건이다. 외현상으로 보아 사이버공간은 더 이상 단일한 자아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인간자아의 해방적 공간이다. 사이버상황에서는 고정된 자아정체감 자체가 열린 공간을 가로질러 자유로이 분산되고 해체된다. 개인은 더 이상 경직된 하나의 자아에 의해 한정되지도 않으며 동시에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주체로 중심화되었다고 자만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자아의 해체는 사이버공간이 인간, 특히 페미니즘에 줄 수 있는 낭보인 동시

에 저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판적으로 보면 주체해체라는 명목하에 전자공간이라는 무한히 열려있는 場에서 자칫 의식이 파편화된 인간들만 양산될지도 모른다. 이는 결과적으로 사이버공간이 주체의 해방보다는 소외와 탈개성화를 부추길 수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게 된다. 허버마스가 뉴미디어가 복잡다기한 현대사회를 더욱 분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사회적 통합의 길을 찾을 것을 충고한 것도 이런 측면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이버공간은 개인을 타인과 구별해주는 성별, 연령, 학력, 계층 등의 차이를 통해서 형성되는 현실세계에서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과정에서 사이버주체의 출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 진영에서는 사이버주체를 미래의 페미니스트 전사로 찬양하며 환영하고 있다. 이들 사이보그는 '원초적인 일체'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모더니스트의 환상을 거부하면서 '균열된 자아들'과 반항하는 의식을 결속시키는 정치적 전략을 택하게 된다. 즉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여성만들의 사고방식, 행동방식, 그리고 이론과 정치를 중심으로 여성의 자리를 재인식하려는 페미니스트 입장주의의 접근방식을 주체중심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하면서, 오히려 성별의 특권을 포기하는 포스트모던 주체를 통해 페미니즘의 가능성을 찾는다. 사실상 포스트모던 관점에서 볼 때 애초에 인간에게 단일한 자아로서의 본질같은 것은 없다. 따라서 (우월한) 남성성, (열등한) 여성성이란 본질가정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포스트모던 주체는 '나'라는 본질이나 '나'를 위한 총체적인 비전을 유지할 수 없다. 이들의 논리상으로 본다면 사이보그의 정체성을 부여받을 때 여성의 자리란 전통적인, 억압된 본질적 정체성을 강요받는 대신에 유동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그녀들이 처한 각 상황에 적절한 좀더 분화되고 주체적인 힘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다. 이는 여성들이 지배자의 입지를 은폐하는데 사용되었던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여성 본질관을 벗어던지고 피억압자의 관점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편으로 해체주의를 차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그러나 만약 페미니스트가 이러한 주체의 해체 작업을 신중하게 받아들일 경우, 아마도 페미니즘의 정치화, 여성연대의 세력화 자체가 약화되거나 심지어 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 페미니스트 정치가 소위 여자라는 특정한 주체 혹은 구성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한 주체중심의 연구나 이론을 반대하고 금지하는 포스트모더니스트의 주장은 여성구성원들의 목적들에 헌신적인, 조직적인 여성운동의 합법성 기반을 손상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Harding(1991)은 바람직한 페미니스트의 모습을 '균열된 주체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집권적 권력에 대항하는 단결 안에서만 성립가능한, 온건하면서도 방어적이 아닌 건강한 주체성을 강변하고 있지만, 과연 이런 방식의 균열된 저항이 막강한 힘으로 버티고 있는 기존의 남성중심의 통일된 체계에 대항해나갈 수 있는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가는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는다. 하당 자신조차도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던 정치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이러한 의심이 단순한 의심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준다. 즉 주체해체란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 진영의 표면적 주장과는 달리 양면의 칼날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사이버공간에서의 여성세력화를 무장해제 시키게 되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도 있다.

균열된 주체에 대한 포스트모던 가정은 종종 다른 진영에 서있는 페미니스트들을 당혹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든다. Hartstock(1987)은 서구 역사에서 전에는 침묵을 지켰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여성의 주체성을 말하기 시작한 때에 주체의 개념을 의심하려고 하는 것은 단지 신포도 현상의

세련된 형태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고 공격했다. Flax(1990)도 주체의식을 의심하는 것은 여성의 억압된 주체성이 여성들에 의해서 탐구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해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이 비판하고 있는 주체는 사실상 남성적인 자아에 해당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여성들이 비로서 자신들의 자아를 기억해내고 자신들의 행동의 주체성을 주장하는 이때에 주체의 해체를 충고하는 사람들의 저의를 깊이 의심하는 입장에 서있다. 사실상 포스트모던 주체개념을 받아드릴 경우 자칫 여성의 지위는 이론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특권이 없는, 그야말로 '차이의 복수성' 속으로 사라져갈 수 있다. 이러한 점이 일부 페미니스트들로 하여금 사이버공간에서의 여성의 사이보그화를 염려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Jay(1985)가 지적했듯이 우리가 성별과 같은 위계질서의 차이들을 해로운 환상들이라고 너무 성급하게 해체시키는 것은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 동안 현실의 세계에 뿌리깊게 내려있어 이상만으로는 변화되기 힘든 힘이라는 점을 과소평가하게 할 수 있다. "다원주의는 여성들을 다른 집단들 가운데서도 다른 집단으로 전락시킨다. 그것은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절대적인 무관심, 평등함, 상호교체가능성으로 전락된 차이일 뿐이다"라는 Owens(1983)의 표현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듯이 '균열된 자아'이론의 주장은 바로 그 자신이 반대하고 있는 남성중심주의의 결백해보이는 무관심과 흡사할 수 있다. 아마도 성별의 차이란 아직까지도 우리가 좀더 완전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기본적인 것이며, 더구나 현실적으로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차에 대한 믿음이 "차이를 만드는 차이"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극단적으로 비난한다면 사이버주체는 로저스가 크게 염려한바 있는 실제적 자아(real self)와 이

상적 자아(ideal self) 그리고 지각되어진 자아(perceived self)간의 괴리로 인해 더 이상 힘들어 하지 않아도 되고, 따로히 안정된 자아구조와 현상의 場, 경험의 場간의 일치성 여부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존재로 화할 수 있다. 부인(denial)과 왜곡에의 긴장된 수고도 없이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 시공간의 제약조차 넘어선 내 정신이 원하는 방향 어디로이든 나(자아)를 분산시키고, 확장해나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 주체, 그것이 페미니즘이 바라던 여성의 미래상은 아닐 것이다. 이렇듯 중심없는 다중정체감 그 자체는 자칫 해체주의적 전략을 강조하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취약한 여성주체의 현 존재기반 자체마저를 위협할 수 있다. 물론 사이보그의 주체성이 정신이상자의 파편화된 자아분열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할지라도, 여성의 취약한 현실로 볼 때 결국 해체주의적 전략의 순진한 실천이란 결과적으로 의식없는 주변화된 여성들을 양산해냄으로써 여성의 인간화를 향한 오랜 꿈 자체를 무산시키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사이버공간이 탈중심의 다원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 이상적 공간일 수 있는 가능성이나 사이보그의 긍정적 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페미니즘의 전략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주체로서의 해체전략의 정치적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구체적 묘안이 없는 이상, 남성중심적 권력장치로부터의 탈출을 꿈꾸던 페미니스트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다시한번 딜레마에 빠져들게 된다.

## 나가는 말

오늘날 한편에서는 인류가 전지구적 친밀감으로 묶일 수 있다는 테크놀로지의 희망찬 메시지가 요란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극도로 이기적인 개인주의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신의 주체마저 주체하지 못하여 자아분열을 거듭하며 파

편화되어가는 개인들의 군상이 어지럽다. 이같은 세기말적 현상은 새로운 천년을 향해 나아가만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사실상 테클놀로지 체계란 일종의 자기증대 체계(self-augmenting system)이다. 현대의 놀란만한 테클놀로지의 발전은 이제 인간의 통제범위를 벗어나 마치 그것이 합리적인 목적대로 잘 썩여질 것이라고 예상했던 인간의 본래 의도를 조롱이라도 하듯이 스스로 위세를 더해가고 있다. 물론 테클놀로지의 자기증대 공식 뒤엔 인간들의 권력 의지가 숨어 있다. 더 정확하게 푸코식으로 상술한다면 지식과 권력간의 목인된 공모관계가 테클놀로지 체계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문제의 심각성은 특정 유형의 권력집단들의 의지조차도 테클놀로지의 자기증대 메커니즘 앞에 표류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있다. 이 점에서 다가올 인류역사의 일천년 준비는 어쩌면 뉴미디어라는 우리가 현재 도취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적인 테클놀로지 체계가 전적으로 인간 삶의 풍요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일 수 있다.

사이버공간은 그 특성상 플라톤주의의 산물이다(Heim, 1993). 사이버공간 속의 정보(inFORMATION: 형상화하기)는 플라톤이 말한 형상의 아름다움을 계승하고 있다. 상당수 현대인들이 육체의 감옥을 떠나 사이버공간을 향하면서 무한정한 디지털 정보들에 넋을 빼앗겨가고 있다. 인간육체의 직접성을 초월하여 시뮬레이션하는 방법을 써서 인간의 물리적인 현전을 간단히 하나로 묶어내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펼쳐는 마술에 도취하여 마치 컴퓨터의 세계만이 물리적 동일성에 의해 부과된 제약조건들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는 세상인양 맹신할 정도이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의 철없는 욕망이 구체적인 물리적 현실성보다는 언어적, 정신적 지성을 앞세워 무한하고 무오류적인 정보를 추구하고 있는 동안 플라토니즘은 컴퓨터 앞에 있는 우리의 넋나간

육체를 경멸하고 조롱하고 있다. 플라토니즘에서 보면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간육체란 단지 몸뚱이라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온라인 실존은 본질적으로 애매모호하다는 위험성이 있다. 사이버공간에서 육체는 인간실존의 부차적인 존재가 되고, 육체적인 접촉은 선택사항이 되버린다. 그러나 인간의 실존이야말로 육체적인 실존이 아니던가? 인간의 자기란 근원적으로 육화된 지각(embodied perception)의 과정이자 그 산물이다(Butterworth, 1995). 인간의 개별성을 보장하는 근거 자체가 일차적으로 우리의 육체일뿐 아니라 플라톤이 착각하고 있는 완벽한 인간 정신조차도 그 출발점은 육체에 있다. 사이버사회와 사이보그 혹은 사이버네틱 유기체가 육체를 경멸하고 육체의 배제를 강조하는한 결과적으로 그 참을수 없는 가벼움으로 인하여 사이버공간은 자멸하거나 아니면 현실공간까지 끌어들이며 함께 디스토피아로 화하게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공간에서의 가능한 부정적 미래상과 그러한 공간에서의 인간의 사이보그화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현대인들에게 가상공간이 아닌 '자연공간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은 마치 도시인들에게 무조건 '자연으로 돌아가라'라는 헛구호를 외치는 것과 흡사하다. 그보다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바 미래사회는 어떤 모습의 사회인지, 사이버공간에 과연 우리는 어떤 사회를 세우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회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성의 어떤 부분이 경계되어지고 또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사이버공간 역시 컴퓨터를 통해 인간마음 속의 정신적 개념이 외현화되어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는 또하나의 심적 구성물(mental construct)이다. 가상공간이라고 해서 인간 저 밖에 따로 존재하는 허구의 공간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고 인간과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새롭게 재구성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조건일 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인지 자

체도 뇌 속에 캡슐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 작용 속에서 구현되는 상황지위된 인지(situated cognition)이고 보먼(Kirshner & Whitson, 1997), 사이보그의 마음도 사이버공간적 특성에 의해서 가능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서 사이버사회에서의 여성의 자리 또한 미리부터 집을 먹거나 아니면 하나의 고정된 관점- 그것이 다원주의적 주장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에서만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미래 사회에서의 주체성 찾기라는 관점과 조화될 수 있는 새로운 페미니즘의 논리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본 논문의 관심상 현실생활에서 사이버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는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여성의 자리찾기를 사회구조적 측면보다는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고, 가능한 대안들 가운데 하나로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보그의 육화 작업, 즉 몸성 회복을 통한 사이보그에 숨결불어넣기라는 전략제시로 논의를 마무리 짓고자 한다. (기존의 페미니스트 포스트모더니즘에서 제아된 사이보그개념과 차별을 두기 위해 앞으로는 '육화된 사이보그'라고 명명하기로 한다.)

개인의 단일한 정체성에 대한 가정은 사이버공간에서는 가능하지 않다(황상민, 1997).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체성이란 그것이 나타나는 상황이나 영역에 의해 영향받게 되기 때문에 사이버공간속의 개인들의 정체성은 다양한 특성을 포괄하는 하나의 실체이기 보다는 개별적인 특성 하나하나가 한 개인의 정체성으로 드러날 수 있다. 즉 사이보그는 현실에서와 같이 성별, 연령, 외모에 의해 제한되는 어떤 미리 결정된 속성을 넘어서서 상황에 적절하게, 자유롭게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변적 특성을 지닌 모습으로 설명될 수 있다. 사이보그가 페미니스트의 주목을 받게 되는 것 역시 이렇듯 사이보그의 복합정체성 (multi-identity)개념이 고정적이라기 보다는 끊임없이 확장되고 변화하며, 또 새롭게 창조되

는 정체성이라는 점에 있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스트 입장주의에서 전통적으로 강조해왔던 여성으로서의 의식화 그 자체는 아마도 사이보그로서의 사이버주체에게 더이상 강한 의미를 던져주기 힘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입장주의의 비판적 우려와는 달리 '육화된 사이보그'는 페미니즘의 미래 전사로 변신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이다. 왜냐하면 '육화된 사이보그'의 모습은 그것이 인간의 인식능력의 확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고정적인 남성들을 부수는 인식들을 갖춘 존재인 동시에 그 특유한 개방성 전략으로 억압되었던 여성성- 여기서 여성성이라는 함은 전통적으로 여성성이라고 명명되어져왔던, 그러나 남녀모두에게 해당되는 인간성의 독특한 부분을 의미한다-을 되살려내는 따뜻한 심장을 지닌 육질성을 지닌 존재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본 논문에서 제안되는바 진화된 사이보그는 억압받은 피해자 집단의 조건에 냉담한 금속성 이미지나 무오류의 객관적 지식을 추구하는 이성맹신주의자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상황적응적인 강력한 복수정체성을 가지고 사이버공간에서 기존의 중앙중심주의 세력을 분산시키며 의견을 같이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을 중심으로한 공동체 의식형성을 가능하게하는, 배려(caring)의正義의 메신저로서 재해석될 수 있다. '육화된 사이보그'의 개념 제안은 억압받은 피해자 집단으로서의 여성조건을 간과한 무성성의 이미지로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페미니스트 입장주의조차를 넘어서서 역동적인 객관성(dynamic objectivity)을 가지고 기존의 남성중심의 세력을 분산시키며 보다 구체적인 여성연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인간성-양성성 차원을 초월한- 구현의 존재로 재정의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이는 전형적인 사이보그 이미지에 몸성을 되돌려주는, 다시말해 모성성- 모성성 역시 여성전유의 특성이기보다는 성별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배려성(caring)을 의미하는 표현이다.-의 숨결을 불어

넣는 작업이기도 하다.

몸을 가진 '육화된 사이보그'는 더이상 해체된 자아분열자나 성별혼동자나 異常성애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몸이야말로 사회적인 것의 육체적인 거처이다. 몸은 본원적으로 사회적 현상이다. 인간끼리의 관계지움을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하다(방희정, 1996). 따라서 미래지향적 사이버주체는 그 선조건으로서 땅위에 서있는 육체를 요구한다. '육화된 사이보그'의 라이프스타일은 타자의 시선에 길들여진 판단양식을 거부하는 대신 자신에 대한 반성적 사고를 체질화할 뿐 아니라 억압받는 타자들을 친밀성과 배려성으로 몸으로 그려안는 삶의 방식을 일상화한다. 즉 '육화된 사이보그'의 인간관계는 더 이상 특정 생물학적 성에 따른 타의, 자의로 강제된 성별정체감에 자신을 고정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상황에 적절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표현해내며 상호간의 공동관심사에 따라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며 땅에 뿌리를 둔 실천적 삶을 꿈꾼다. 여성의 '육화된 사이보그'로의 전회야말로 고정관념으로 유형화된 성별 정체감으로 자신을 단일 정체성으로 고정시키려던 사고양식을 해체시키고 유연한 공동체 의식과 개인의 복합적 모습을 촉진하는 포스트모던 사고에로의 전이를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천적 지성으로의 행동적 삶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이버주체로서의 여성의 삶이란 더 이상 이상적인 여성상을 위한 고행의 길이 아니라 자발적 경험과 자유로운 표현을 통해 현실세계와 사이버공간을 통합하여 자신의 의식의 지평을 확장해나가는 동시에 타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나가는 인간으로서의 일련의 발달계적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은 우리의 현실과 완전히 분리된 어떤 새로운 공간도 아닌, 현실적 내용들이 다양하게 제시되는 또하나의 생활공간이 될 것이다. 사이보그 또한 우리를 겁먹게 만드는 파편화된 무성성의 기계인간이 아니라 이미 현재 우리속에

함께있는 가능성의 인간모습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관심두어야할 부분은 우리가 사이버사회의 이중적 가능성가운데 어떤 방향으로의 진화적 미래를 택할 것이냐이고, 우리자신이 미래의 어떤 사이보그로 성숙해나갈 것이냐이다. 미래 세상을 어느 한 세계를 폭파시키지 않고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공간(culturally-sustainable environment)으로 설계해나가기 위해서는, 그리고 미래주체를 정신분열증 환자나 탈육화된 유형으로 만들지 않고 인간다움이 유지되는 생명체로 지속시켜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차이를 경계지우려하는 시도나 사이보그화에의 두려움 자체를 벗어나야 할 것이다. 오히려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간관계가 현실공간에서 경험하는 인간관계 이상으로 진지하게 다가오는 역설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이보그를 통해 우리의 진화된 인간다움의 정수를 느껴보기 위해서 컴퓨터 네트워크에서의 접속(connectin)과 현실공간에서의 육체적 접촉(contact)과의 현명한 연결점을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 21세기의 공간이 뉴미디어의 테크놀로지 위력아래 재편될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미래의 자원은 여전히 궁극적으로 인간이 아닌가? 인간은 환경조건에 의해 구성되는 존재이지만 동시에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또한 인간이다. 따라서 현실세상이든 사이버세상이든 미래사회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 우리가 되고자하는 인간상을 통해서 준비될 수 있고 또 준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부터 문제해결의 출발점을 삼아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요즈음의 현실공간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비인간화와 탈육체화 현상에 대한 자기반성과 대안제시야말로 현실사회와 사이버사회의 공진화를 위한 선조건이 될 것이다. 결국 인간의 미래는 상당부분 두 세계에서 전개되는 스토리를 어떻게 잘 연결시키나에 달려있게 되는데, 여기에 필수적인 동력원이 바로 다름아닌 전통적으로 여성성의 속성으로 이름지워져왔던 인간다움의

속성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내희 (1996). 사이버 '문형'과 주체성-사이버정치의 조건들. *문화과학* 10호. 서울: 문화과학사.
- 김미경 (1997). '평등한' 과학을 향한 페미니즘. *열린지성* 2호. 서울: 교수신문.
- 김선업 (1996). 컴퓨터-매개 커뮤니케이션과 개인관계망의 변화. *정보통신기술발달과 현대사회*. 한국사회학회 추계특별심포지움 발표논문.
- 방회정 (1996). 몸의 자리. *한국여성심리연구회지*, 1, 6-28.
- 서울 YMCA (1995). PC 이용자 인식실태 조사보고서. 천리안.
- 하임, M. (1997). 가상현실의 철학적 의미. *여명숙(역)*, 서울: 책세상.
- 한규석 (1997). 사이버사회에서의 교류양상. 가상공동체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용.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춘계 심포지움 발표논문*.
- 황상민 (1997).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의 청소년의 정체성 형성. 가상공동체의식과 정보화 사회에의 적용. *한국심리학회 1997년도 춘계 심포지움 발표논문*.
- Butterworth, G. (1995). An ecological perspective on the origin of self. In J. L. Bermudez, A. Marcel & Bilan(Eds.), *The Body and Self*. Cambridge, MA: The MIT Press.
- Desautics, G., & Gallupe, R. B. (1987). A foundation for the study of group decision support systems. *Management Science*, 33, 589-609.
- Flax, J. (1990). *Thinking Fragments: Psychoanalysis, Feminism, and Postmodernism in the Contemporary West*. Berkel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raway, D. J. (1988). Situated knowledges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as a site of discourse on the privilege of partial perspective. *Feminist Studies*, 14, 575-599.
- Harding, S. (1986a). *The Science Question in Feminism*. Cornell University Press.
- Harding, S. (1991). *Whose Science? Whose Knowledge? Thinking from Women's Lives*.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Hartstock, N. (1987). Rethinking Modernism: Minority vs Majority Theories. *Cultural Critique* 7: 187-206.
- Jay, M. (1985). Hierarchy and the Humanities: The Radical Implications of a Conservative Idea. *Telos*, 62: 131-144.
- Kirshner, D. & Whitson, J.A.(1997). *Situated Cognition*.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Owens, C.(1983). The Discourse of Others: Femisists and Postmodernism. The Anti-Aesthetic. Foster, H(Ed.), Port Townsend, WA: Bay Press.
- Spruill, L., & Kiesler, S.(1986). Reducing social context cues: Electronic mail in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Management Science*, 32, 1492-1512.

# The Women's Situation in the Cyberspace

Hee-Jung Bang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onggi University

In this paper, the double meaning of cyberspace was analysed by feminist's perspectives focusing on human relationships. It was presumed that the classical concept, the subjectivity as the adamenat basis of the self might be deconstructed through the experiences of cyberspace-specific life. An flexible multi-identities instead of fixed uni-identity could be more adaptable and desirable in cyber-society. In this point the situation of cyberspace might be bring out dangerous change for the position of women's subjectivity. As a possible alternative for the feminists' dilemma an aternative the new conception, "bodily based Cybog-Being" was proposed for the ideal model of future feminism. This image of Cybog-being based on body comprised the femine characteristics with warm caring as well as full-humanness with dynamic objectivity.